

다니엘서 - 번호 197

예언적 전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모으심과 요한계시록의 서사에서
이슬람의 종말론적 역할

Jeff Pippenger
2024-04-29

우리는 이제 일곱 우레로 대표되는 사건들 중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2023년 7월에 시작하신, 그분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시는 사역임을 확인하고 있다. 밀러파의 역사는 이 사역이 메시지의 배경을 이루는 이슬람의 전쟁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힌다.

그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며, 은혜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봉함이 풀리지만, 그 기별은 셋째 화의 기별에 의해 전해지고(그 맥락 속에 놓여 있다). 1849년에 주께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펴시던 바로 그때, 화이트 자매는 분노한 열방의 흔들림에 관해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슬람을 상징한다.

1848년 12월 16일, 주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을 내게 보여 주셨다. 나는 주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표적들을 말씀하실 때 '하늘'이라고 하셨으면 하늘을 뜻하셨고, '땅'이라고 하셨으면 땅을 뜻하셨음을 보았다. 하늘의 권능은 해와 달과 별들이다. 그것들은 하늘에서 다스린다. 땅의 권능은 땅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하늘의 권능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그때 해와 달과 별들은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흔들릴 것이다.

"질고 무거운 구름이 몰려와 서로 부딪쳤다. 대기가 갈라져 뒤로 밀려났고, 그러자 우리는 오리온자리의 열린 공간을 통해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 열린 공간을 통해 거룩한 성이 내려올 것이다. 나는 지금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건들이 차례대로 전개됨을 보았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칼, 기근, 전염병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 것이며, 그 후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까지도 흔들 것이다. 나는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어떤 이들이 가르치듯 하늘 권세들의 흔들림이 아니라, 분노한 나라들의 흔들림임을 보았다." 초기 저술, 41.

역사가들은 1848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뒤흔든 것이 이슬람 군대들의 활동이었다고 확인한다. 왜냐하면 예언적으로 그들은 열방을 분노하게 하는 권세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역사에서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뻗으신 것에 대한 첫 증거로,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엑서터 야영 집회에 도착했다. 거기서부터 1844년 10월 22일에 이르기까지 그 기별은 해일처럼 미국 동부 해안 전역을 휩쓸었다. 그 운동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하신 사건으로 예표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태우고 들어간 것은 나귀였다.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전체의 예언적 메시지를 대표하지만, 그 계시는 열방을 격노하게 하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라는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가 바로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그분은 '나귀'의 메시지에 매여 계신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송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으리니,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움켜 가지고 올라왔도다. 그는 몸을 굽히고 사자같이, 늙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누가 그를 일으키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하리니, 그에게 백성들이 모이리라. 그는 그의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그의 어린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의 의복을 포도즙에 빨았도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희리라. 창세기 49:8-12.

"백성의 모임"은 유다를 통해 성취된다. 그리스도는 유다로서 또한 "포도나무"요 "좋은 포도나무"이시며, "나귀 새끼"가 그에 매여 있다. 그의 "옷"은 "포도주"에 씻겼는데, 그것은 "포도의 피"이다. 그리스도는 피땀을 흘리신 겟세마네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고,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짜는 틀"을 뜻한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모으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려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가리켜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2:31-33.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는 그가 먼저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기치로 삼아 그의 다른 양 떼를 이끄시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 놓는다. 또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내게 있는데, 그들도 내가 데려와야 한다.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리하여 양 떼는 하나가 되고 목자는 한 분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14-16.

십사만 사천은 그분을 아는 '양'들이다. '다른 양들'은 그 기치를 보고 듣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분의 양 떼이다. 그분의 기치, 곧 그분의 양들을 들어 올리시기 전에, 그분은 먼저 그들을 다시, 곧 두 번째로 모으신다. 그 거룩한 역사의 선은 다니엘서 11장 13절부터 15절과 일치하며, 그러므로 40절의 숨겨진 역사와도 일치한다. 그것은 41절의 일요일 법령 직전에, 배도한 개신교의 뿔의 역사와 배도한 공화주의의 뿔의 역사, 그리고 두로의 음녀가 도래하는 그 역사 속에서 전개되는 참된 개신교의 뿔의 선을 나타낸다. 참된 개신교의 뿔의 그 선은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역사이자 또한 그 기별을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은 예레미야가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이라 부른 자들, 또는 스미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급되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요한이 "사탄의 회당"이라 부른 자들과 대조되는 한 계열을 대표한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요한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을 대표하며, 스미르나는 같은 장의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이다. 마지막 날에 구속받은 두 부류는 거짓을 말하고 사탄의 회당에 속해 있으며 유대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대립한다.

참된 개신교 뿌리의 계열은 그들 자신과 그때 지나쳐지는 이전의 언약 백성 사이의 논쟁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역사 속에서 신실한 이들은 배도한 개신교의 계열과 가톨릭의 계열과도 논쟁하고 있다. 그 세 종교적 실체는 참된 개신교 뿌리의 계열 안에서 미시적 차원에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를 대표한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유다처럼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가톨릭의 영향력을 얻고자 우리를 가톨릭에게 넘겨주어 배신할 것을 보았다. 그때 성도들은 가톨릭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관습을 아는 교회들과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그들은 안식일 때문에 우리를 미워했는데, 그것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은 성도들을 배신하고 그들이 백성의 제도를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하여 가톨릭에게 고발할 것이다. 즉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을 무시한다고." Spalding and Magan, 1, 2.

우리는 이 본문을 전에 다루었고, 그 과정에서 '명목상의 교회'와 '명목상의 재림교인'이라는 표현이 화이트 자매가 그 말을 기록하던 당시에는 의미와 적용이 달랐을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자기 시대의 역사보다 말세에 대해 더 많이 말했으므로, 이 본문에서 말세의 명목상의 교회는 배도한 개신교를 가리킨다. 'nominal'이라는 단어는 '이름뿐인'을 뜻한다.

소위 개신교회는 1844년에 로마에 대한 항의를 중단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에 저항했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올바른 예배일임을 인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가톨릭의 표징인 태양 숭배를 고수했다. 로마 교회가 성경의 예배일을 일곱째 날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꿀 권위라고 거듭 규정해 온 권위의 상징을 받아들였다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의 유일한 정의인 로마에 대한 '항의'는 불가능하다.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은 자신들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이라고 공언하지만, 자신의 신앙고백을 배반한 제자의 상징인 유다로도 규정된다. 명목상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며, 그 성도들은 그때 "무명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 때문, 곧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진리 때문으로 그 무명의 성도들을 미워한다. 화이트 자매의 역사 속 안식일 진리는 제칠일 안식일이었지만, 그것은 말세의 안식일 진리를 예표하며, 그 진리는 반박될 수 없고, 그것이 바로 1863년 그들의 반역 가운데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처음으로 거절한 교리이다. 그 교리는 윌리엄 밀러가 최초로 발견한 기초적 진리였으며, 예레미야의 옛 길로 표현된 바와 같이 명목상의 재림교인들이 행하기를 거부하는 재림주의의 기초 진리들을 대표한다. 그 안식일 진리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이다.

필라델피아와 서머나로 구성된 참된 개신교의 노선은 유다로 표상된 자들에 의해 배신당한다. 유다는 예수님을 세 번에 걸쳐 배반하기로 언약했으며, 이로써 십자가에 앞서 진행되어 십자가에서 마무리되는 점진적 배신을 드러낸다. 다니엘 11장 16절은 십자가로 예표된 일요일 법령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16절의 일요일 법령(또한 41절의 일요일 법령이기도 한)으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세 단계의 배신이 가해진다. 그 배신은 주께서 자신의 말세의 기치를 두 번째로 모으시는 기간에 일어난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들을 위한 기호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찾을 것이요 그의 안식은 영광스러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 남아 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리라.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또한 에브라임의 시기가 떠나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지리니,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블레셋의 어깨 위로 날아들며, 함께 동방의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에돔과 모압 위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은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이사야 11:10-14.

이사야는 10절에서 '그 날에'라는 표현을 통해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밝힌다. 따라서 그 '날'은 10절 이전의 구절들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식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근거를 찾아 이 예언적 서술을 거슬러 올라가면, 10장 1절에 이르게 된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그들이 정한 압제를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10:1

화이트 자매는 이 절의 '불의한 칙령'을 곧 다가오는 일요일 법으로 규정한다:

두라 평지에 금 신상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상의 안식일이 세워졌다.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형상에 절하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라 하는 조서를 내렸던 것처럼,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투옥과 사형으로 처벌하겠다는 선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의 안식일은 발아래 짓밟힌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셨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며, 자신들이 정한 대로 고통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10:1]. [스바냐 1:14-18] Manuscript Releases, 제14권, 92.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시는 것의 맥락은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 위기의 역사 속에 놓여 있다. 이는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이사야가 불의한 칙령, 곧 일요일 법령 때에 주께서 자신의 집행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의 사역을 마치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내가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오만한 눈빛의 영화를 벌하리라. 이사야 10:12.

교황권에 대한 징벌이 주일법령에서 시작되기 전에 주께서 "행하시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은 14만 4천 명의 인침이다. 에스겔 9장에서 서기관의 멍그릇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니며 그 땅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표를 친다. 그 사역에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두 번째로 함께 모으시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분은 그들을 땅의 네 모퉁이에서 모으시며, "땅의 네 모퉁이"는 여덟 개의 지리적 지역으로 표상된다. 여덟은 짐승의 우상에 대한 시험 과정의 상징이므로, 기치가 될 자들의 최종적인 모임이 짐승의 우상 시험이 땅에서 진행되는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시기하지 않고, 유다가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는" 것으로 표현된 연합은 유다의 대적들이 끊어질 때 이루어진다. 예언적으로, 유다, 사탄의 회당,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 밀러주의 역사에 속한 개신교도들, 혹은 그리스도의 역사에 속한 유대인들로 대표되는 이전 언약의 백성은 첫 번째 실망 때 "끊어진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역사를 대표할 때, 그는 자신은 결코 조롱하는 자들의 회중에게 돌아갈 수 없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로 선택한다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

2020년 7월 18일부터 주일법에 이르기까지 주께서는 자신의 말세 백성을 두 번째로 모으신다. 그분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기간 동안, 그분은 그들을 전 세계에서 모으신다. 그 인침의 때에 하나님의 말세 백성은 눈에 띄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을 반대하는 삼중 연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톨릭은 삼중 연합의 짐승이며, 그 딸들 가운데 하나는 화이트 자매가 명목상의 교회라고 규정한 부류이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대표한다. 유다로 대표되는 명목상의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은 이 표상에서 용이다. 1863년의 반역은 고대 이스라엘이 첫 가데스에서 여호수아와 갈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 했던 반역으로 예표되었다. 이집트는 용의 상징이다.

인자야, 네 얼굴을 애굽 왕 바로에게로 향하고 그와 온 애굽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워 있으면서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큰 용이로다. 에스겔 29:2, 3.

가데스에서의 반역은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택한 백성이 버림받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시험 과정에서 열 번째 시험에 해당했으며, 또한 1844년 10월 22일 필라델피아 밀러파 재림운동 위에 임하여 1863년의 반역으로 끝난 시험 과정의 마지막 시험을 예표하였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의 맨 끝에 유대인들은 "그를 없애라,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처음 반역과 마지막 반역에서 옛 언약의 백성은 용의 상징(이집트와 이교 로마)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로 선택하였다.

2020년 7월 18일, '유다의 대적들'이 '끊어졌다', 그리고 14만 4천의 성전이 세워졌다. 남은 것은 언약의 사자가 자기 성전에 갑자기 오시기 전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뿐이었다. 밀러주의 역사 속의 성전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46년에 걸쳐 세워졌다. 1844년 4월 19일의 첫 실망 때에 개신교도들은 끊어지고 사탄의 회당,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로마의 딸의 일부가 되었다. 그 시점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 신실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분이 자신의 신성을 그들의 인성과 결합시키는 사역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불의한 칙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자신의 다른 양 떼를 불러내시는 데 사용하실 기치가 되도록 두 번째로 모아지는 참된 개신교의 뿔의 역사는, 배도한 공화주의의 뿔과 배도한 개신교의 뿔이 서로 연합하여 영적 음행을 행함으로써 한 몸, 곧 한 성전이 되어 짐승의 형상이 되는 바로 그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전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너는 여호와와 그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겠다.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여호와와 그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된 말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진실로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사람과 이웃 사이에 정의를 철저히 시행하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아니하고,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너희 자신을 해치는 다른 신들을 따라 다니지 아니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로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 이 곳에 영원히 살게 하겠다. 보라, 너희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향을 사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고 건짐을 받았다'고 말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던 내 처소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함 때문에 내가 그것에 무엇을 행하였는지 보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고,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뢰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대하여,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행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온 씨, 곧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내쫓은 것 같이, 너희를 내 앞에서 내어 던지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 말며, 내게 중보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네가 보지 못하느냐? 예레미야 7:1-17.